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4일 월요일 음 4월 12일 (4물)

기상정보

막음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0%	
0%		성 산		0%	
0%		고 산		0%	
0%		서귀포		0%	

	해돋이 05:43		달돋이 15:38
	해짐 19:19		달짐 03:45
물때	만조 08:17 20:43		간조 02:05 14:51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4/22℃
모레		구름 많음	16/23℃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주의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월드뉴스

트럼프 “김정은 건강하게 돌아와 기쁘다”

직접 트윗으로 메시지 받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건강 이상설에 더해 사망설까지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존재가 확인된 데 대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기쁘다고 말했다.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의 '북극'에 대해 직접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어서 코로나 19 국면 속에서 정상 간 '툰다운 소문'을 통한 북미 관계의 모멘텀 마련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돌아온 것, 그리고 건강한 것을 보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순천 비교공작 준공식 참석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준공식 대이표를 직접 끊는 장면, 건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행사에 많은 군중이 참석한 모습을	위원장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통 해 북한의 추가 도발 등 궤도 이탈 가 능성을 차단, 대신 국면에서 상황 관 리를 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공에서 찍은 장면 등 3개의 사진을 올린 다른 이의 댓글을 리트윗했다.

전날 북측의 발표 직후 신중환 반을영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환영 트윗을 올린 것은 김 위원장의 견제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 등의 최종 확인 작업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윗은 김 위원장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등 궤도 이탈 가능성을 차단, 대신 국면에서 양자화 관리 하려는 측면도 있어 상당한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고 대 로
경제산업부장

지난 2016년 개점한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영업부진으로 면세점 특허면허를 반납하고 지난날 폐업했다.

개점 5년 만에 1000억원대 매출과 36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장담했으나 4년 만에 160억원 적자를 내고 문을 닫았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 영업 부진에 영향을 주었지만 가장 큰 패착의 요인은 전문가의 부재였다.

명품 브랜드 유지는 면세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면세

제주관광공사 실패한 면세점 경영 책임 물어야

시장에서 유명 명품 브랜드 유치는 모객 효과가 크고 객단가도 높아 매출 증대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면세사업에 문외한 인사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롯데와 신라 면세점처럼 명품브랜드를 유지하는데 한계를 보였고 결국 이월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소매파워렛 수준으로 전락해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유커의 발걸음을 끌지 못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였다.

2016년 제주관광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9억원이었으나 2017년엔 1억 7천만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20억원이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사의 경영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지만 보조금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심각한 경영위기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이같은 보조금의 '마술'로 제주

판공공사는 행안부의 2017년 지방공기업 실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고 제주도의 경영평가에서는 '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임직원들은 정부나 거점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150%에 달하는 성과급까지 받았다. 민간 기업이라면 경영진이 해임돼도 시원찮은 판에 두들탄 보너스까지 챙긴 것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내 롯데호텔제주에 있던 시내면세점을 지난 2018년 1월 람정제주개발이 운영중인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주먹구구식 경영의 하이라이드다. 제주관광공사는 롯데호텔제주에서 제주신화월드로 면세점 영업장을 옮기면서 람정으로부터 104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롯데호텔제주에 면세점을 개점하면서 시설투자를 했는데도 영업한지 1년도 안돼 제주신화월드로 면세점영업장을 옮기게 되자 람정에서 시설투자

비 보상 명목 등으로 104억원을 지급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104억 원에 대한 지급 기한을 명문화하지 못했고 이제 면세점 폐업으로 104억원 확보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면세점이 제주신화월드에서 갈때는 정상적으로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3년내에 끝나는 생각은 아무도 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수금 104억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런 부실 계약을 체결한 제주관광공사의 담당자는 물론 산하 지방도 기업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주도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오는 10월 이르면 2017년 취임한 박흥배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실패로 끝난 시내면세점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지. 코로나 19에 편승해 머물며 넘어가려하던 공사의 부실경영은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열린마당

가족사진



김 정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보팀장

어느 가정이란 집안에 들어오면 잘 보이는 곳에 가족사진을 걸어놓는다. 나의 집 역시 그렇다. 몇년 전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중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아버지학교는 모 종교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했는데, 참가자 중에는 나이가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섞여 있었다. 입교자를 대상으로 조별 6명 내외편성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토론,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로서 아내 및 자식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교육과 실습을 했다. 기간 중에는 부모님, 아내 및 자식에게 편지 쓰기 실습 등은 나에게도 낯설고 어색해 부담도 가졌었다. 아버지 학교를 시작할 때만 해

토 인제면 끝날까했지만 수료식을 거쳐 수료증까지 받았다. 아직도 교육받을 때의 마음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거실에 걸어두고 있다.

프로그램 중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 넓이 수 있도록 해주려고 가수 김진호가 만든 '가족사진'이라는 가요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노래에 나의 마음을 몽글하게 만든 가사가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 헌신한 부모님에 대한 애뜻함이 살아있다. '내 젊음 어느 날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울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 꽃 피우길/ 지금도 이 노래를 가가 꽃을 때면 아버지 학교생활이 생각나면서 가족들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재차 다짐해 본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다. 코로나 19로 인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어떠한 정소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해 가정의 소중함도 느끼고, 훗날 자식을 떼올리도록 가족사진을 찍어보며 혼을 두한다.

어린이날과 방정환



이 상 우
제주교육박물관 학예연구사

‘핀대’라는 말이 외국에서도 사용된다고 한다. BBC는 ‘핀대’를 ‘너는 틀렸고 자신은 늘 옳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를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개인 영역 침범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일 것이다. 이에 맞서는 기성세대의 무기는 ‘오즘 애틀 버릇없어’이다. ‘일리아드’에는 ‘옛 장수는 돌도 뿔아 던졌지만 젊은 장수들은 둘이서도 못 댈다’라는 표현이 있다. 한비자는 ‘젊은이들은 스승이 가르쳐도 변할 줄을 모른다’고 했다.

심리학자 아이바흐는 현재보다 과거가 나았다고 착각하는 ‘좋은 옛날 편향’을 연구했다. 사람들은 이전 시대가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치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이 바뀌

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뀌게 됨을 원인으로 꼽았다.

세대끼리 늘 싸운 것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방정환이 있다. 그는 ‘애새끼’로 불리던 아들이들 ‘어린이’라는 귀한 말로 불리게 했고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1923년 방정환은 새싹이 돋아나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첫 번째 행사를 열었다. 구호는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였다. 일제의 방해로 어린이날은 잠시 사라졌다가 해방 후 부활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엄숙했던 시대였다. 어른들의 권리를 챙기기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방정환은 다음 세대를 생각했고 존중의 씨를 사회에 뿌렸다. 이런 헌신을 바탕으로 어린이는 점차 교화의 대상에서 위함의 대상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말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씨를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씨를 짓밟는 나무는 죽어 버립니다”

5월에는 특별한 날들이 있다. 이번 5월에는 자신의 시기를 내려놓고 타인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자.

양복점 제일사 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이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6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업시간: AM 9시 ~ PM 9시 영모영은 없습니다.

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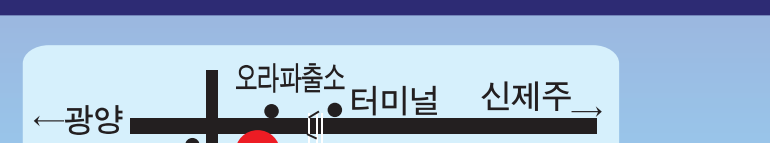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와 함께 하십시오.



CIC M-ITC ITC ITE

-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